

익산에서 즐기는 백제왕도 문화유산

8~14일 백제문화유산주간

다양한 체험 행사·교육·강의

선착순으로 각 50명씩 모집

익산시가 백제문화유산주간을 맞아 백제왕도의 다양한 문화유산을 선보인다.

익산시는 문화재청과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박물관, 공주시, 부여군, (재)백제세계유산센터 등 8개 기관과 오는 8일부터 14일까지 백제문화유산주간 행사를 갖는다.

지난 2018년부터 진행돼 오고 있는 이 행사는 백제역사유적지구 8개소가 2015년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것을 기념해 펼쳐지고 있다.

이 행사는 백제문화유산이 갖는 역사·문화의 중요성을 다양한 체험 행사와 교육, 강의 등을 통해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마다 개최되고 있다.

익산에서는 '큐레이터에게 듣는 미륵사지 이야기' '내가 만드는 미륵사 석등' '어서와, 입점리 고분은 알고 왔지?' 등이 진행된다.

이번 행사를 대표하는 '백제문화유산 녹탄'은 왕도 유적과 출토 유물에 대한 해설, 야간 음악회

로 구성된 체험 행사로 오는 14일 국립익산박물관에서 진행된다.

참여자는 선착순으로 각각 50명씩 모집하며 1일 각 박물관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백제문화유산주간 참여 기관의 자세한 행사 일정, 프로그램 내용 등은 누리집(<http://www.baekjejugan.com>)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우리 지역의 자랑스러운 백제 문화유산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쉽게 국민들이 이해하고 즐길 수 있도록 문화 향유의 장을 제공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익산=유영명 기자 yjy@kwangju.co.kr



순창 덕흥마을 '생생마을 만들기' 최우수상

순창군 덕흥마을이 최근 전북도가 주최한 '제9회 생생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경관·환경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사진>

덕흥마을은 전북도를 대표해 경관·환경분야 최우수마을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행복농촌 만들기 콘테스트에 참가할 자격을 얻게 됐다.

생생마을 만들기 콘테스트는 전북도의 마을 중 소득·체험, 문화·복지, 경관·환경분야로 나누어 우수사례를 선발하여 시상하는 대회다. 이번 콘테스트에는 전북도 내 13개 시·군에서 20개 마을이 참가했다.

덕흥마을은 부안 명당마을, 고창 호암마을과 경쟁해 경관·환경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덕흥마을은 약 20여 년 전부터 마을회관 옆에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마을이었다. 정용우 덕흥마을 총무가 나서 쓰레기를 치우기 시작했고 이를 본 청년들이 돕는 모습을 보고 마을에서는 쓰레기 분리수거 마을규약을 설정, 주민들 스스로 나서 깨끗하고 쾌적한 마을을 유지해오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덕흥마을은 마을에서 발생하는 고철, 비료 포대, 소주병, 맥주병, 농약병 등을 모아 청년회에서 직접 판매하고 있으며 연평균 200만 원가량의 수익을 내어 마을 계사판을 만들거나, 만남의 광장에 데크를 설치하는 등의 경관·환경 개선 활동의 비용으로 재투자하고 있다.

덕흥마을의 마을만들기 사례는 순창군농촌종합지원센터 유튜브 채널과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순창=정양근 기자 jyg@kwangju.co.kr

고창군 안개 아름다운 운곡저수지 주변 수변 산책로 조성

데크시설 교체·안전루프 설치

고창 운곡저수지 주변에 수변 산책로를 만들어져 안개가 아름다운 운곡저수지를 더 오랫동안 감상하며 숲길을 걸을 수 있게 됐다.

고창군은 최근 아산면 운곡저수지 주변에 수변 산책로를 조성했다고 밝혔다.

운곡저수지는 우리나라 24개 랍사르 습지 중 하나인 운곡람사르 습지 내에 있는 인공호수다.

신규 산책로는 고창운곡람사르습지 자연생태공원 친환경 주차장에서 탐방열차(15여분 소요)를 타고 운곡서원 앞에서 내려 2코스로 가다 보면 저수지 방향 용계마을로 가는 길에 만들어졌다. 이번 신규 산책로 조성 사업은 청풍김씨 문중(총무 김진갑)이 고창군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무상으로 영구 토지사용승낙을 허락하면서 진행될 수 있었다.

기존 숲길은 산 중턱에 있어 폭이 좁고 경사가가 높아 시야가 막히는 등 산책하기에 다소 불편했고, 여러 잡목으로 시야도 답답했었다.

이번 산책로 신규개설로 방문객이 편안하고 안전한 산책을 즐기고, 잡목 제거로 저수지 주변의 멋진 경관과 시원한 바람을 느낄 수 있게 됐다.

군은 오래된 데크시설과 쉼 의자에 오일스테인



군민들이 최근 고창 운곡저수지 주변에 조성된 산책로를 따라 걷고 있다.

<고창군 제공>

작업을 실시했고, 가파른 구간에는 안전루프를 설치하는 등 편안한 숲길을 만들었다.

고창군 관계자는 "사유지임에도 좋은 취지로 땅을 무상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도와준 청풍김씨 문

중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관내 숲길 조성지에 대한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고창군민들에게 질 높은 산림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고창=김형주 기자 khj@kwangju.co.kr

남원시 백두대간생태교육장 물놀이장 개장

8월 31일까지 두달간 운영

"백두대간생태교육장에서 물놀이 하세요!"

남원시는 백두대간생태교육장 내 어린이 물놀이장(사진)이 수질검사 및 시설점검등을 마치고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운영된다고 최근 밝혔다.

백두대간 물놀이장은 2018년도에 조성됐으며 약 800㎡ 규모에 5억원이 투입됐다. 조합놀이대와 워터드럼, 워터터널 등 각종 시설을 갖추었다.

물놀이장 이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매일 6회)까지다. 매회 50분 가동에 10분 시설점검 시간이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월요일은 휴관이다.

군은 올해 물놀이장 주변에 대형 그늘막을 설치해 아이들이 햇볕을 피해 맑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민 및 에코루터, 국민여가 캠퍼장 이용자 등 여름철 가족단위 이용객이 많은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담 공무원과 안전요원 등 상시인력 3명을 배치해 질서 유지 등 물놀이장 안전 사고에 대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백두대간생태교육장 물놀이장이 시민 및 방문객을 위한 여름이면 생각나는 휴식처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안전점검 및 작은 부분 하나도 세심히 살펴 행복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정읍시, 최신판 행정지도 2000부 제작·배포

정읍시가 현재의 정읍지역 모습과 다양한 정보를 담은 행정지도 최신판을 제작해 배포한다.

정읍시는 지난 2019년 제작된 행정지도도를 보완·수정해 시의 역동적인 발전 모습을 담은 5만분의 1 축적의 행정지도 2000부를 제작했다.

시는 행정지도 제작을 위해 전문가와 각 부서, 읍면동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 행정구역과 지명, 도로 등 변경사항을 반영했다. 이후 국토지리정보원과 공간정보산업협회의 심사를 거쳐 행정지도를 최종 완성했다.

행정지도 앞면에는 정읍시 전도를 수록해 등고선과 행정구역명, 경제, 주요 관광지, 하천, 공원 등을 표기했다.

뒷면에는 정읍시청을 중심으로 주요 동 지역(시가지)만을 확대한 시가지도와 정읍시 주요 시설 전화번호, 정읍 9청 등을 수록해 지도의 활용성을 높였다. 이번에 제작된 행정지도는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시청 정보통신과에 방문하면 무료로 배부받을 수 있다.

또 정읍시청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서도 누구나 쉽게 내려받을 수 있다.

정읍시 관계자는 "행정지도는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지역의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제작됐다"며 "앞으로도 시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군산시 여아전용 학대피해아동쉼터 개소

군산시가 1일부터 여아전용 학대피해아동쉼터를 개소, 운영한다.

학대피해아동쉼터는 가정에서 발생한 학대로 즉각 분리조치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의 보호를 위해 설치·운영되는 시설로 피해아동 생활지원, 상담 및 치료, 교육 및 정서지원 등을 수행한다.

시는 지난해 7월 남아용 쉼터를 개소, 위탁운영 중에 있으며 여아 학대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 올해 여아용 쉼터 설치를 추진했다.

쉼터는 46평 규모로 생활공간과 심리치료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시설장, 보육사,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이 아동의 보호와 상담·심리치료를 지원하게 된다.

이건설 아동청소년과장은 "아동학대로 가정에서 분리되어 일시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아동학대 예방사업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향장지구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